40년간 600여명의 시각장애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 대린원 김원제 원장

대린원은 중도에 실명한 시각장애인들에게 안마 등을 교육하는 시각장애인 직업훈련시설로, 김원제 원장은 대린원을 비롯하여 홍파양로원, 쉼터중증요양원 등이 속한 홍파복지원의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 원장은 혼자 시각장애인 시설을 힘들게 운영하시는 어머니를 돕고자 대학을 졸업하고 1971년 대린원(당시 맹인대린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40년간 시각장애인과 중증장애인, 불우노인 200만 명을 보호하고 교육시켜왔으며, 건물을 신축·증축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사재를 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9월 7일 제13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열린 사회복지 유공자 시상식에서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습니다.

◀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민훈장을 받고 있다

▲ 시각장애인 원생들과 함께

닫힌 출입문을 통과할 때

문을 연 다음 돌아서서 시각장애인의 다른 손으로 문의 손잡이를 잡도록 하여 문을 닫게 해주세요.

시각장애인 혼자서 문을 통과할 때에는 손잡이가 문의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설명해주고 문손잡이를 잡도록 도와주세요.

후원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 50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은 펼치고 있는 시각장애인 기관입니다. 후원자님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히 쓰일 것이며 후원자님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 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문의전화 : 02-6925-1113)

(지로번호 7608162)
계좌번호 국민은행 835-01-0114-768, 497801-96-200273
우리은행 428-04-103943 하나은행 757-810001-08405
외환은행 170-22-00710-6 (예금주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손으로 보는 세상 | 제18권 10호 통권 147호

2012년 10월 15일 발행
발행처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최동익
편집 노상미 제작 크리콤 (T.02-2269-6224)
전화 02-6925-1121 팩스 02-6925-1117
Homepage www.kbuwel.or.kr
한글도메인 '시각장애인.kr,'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kr'
E-mail kbuhongbo@hanmail.net
우)150-917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표지 사진설명 – 위쪽부터

- 제13회 사회복지의 날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한 대린원 김원제 원장(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
- 강원도 고성 백암해변에서 진행된 '시각장애인 스킨스쿠버다이빙교실'
- 런던장애인올림픽 시각장애유도종목 선수단 귀국환영식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격려해주시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 OCTOBER 2012 | VOL 147

| 우측상단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가 실려 있습니다.

손으로 보는 세상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 유도 최광근 선수, 런던장애인올림픽 금빛 메치기!

시각장애인 유도 최광근(25·양평군청)선수가 런던장애인올림픽 남자 유도 100kg급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장애인 유도종목에서 메달이 나온 것은 지난 2000년 시드니대회에서 안유성(현재 시각장애 유도 대표팀 코치) 선수가 동메달을 딴 이후 12년 만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유도를 해온 최광근 선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망막박리로 중도시각장애인이 되었지만 이후 시각장애유도로 종목을 바꾸고 2010년 광저우장애인아시안게임, 2011년 세계장애인종합선수권대회 –100kg급 개인전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두어왔습니다.

▲ 2012 런던장애인올림픽 당시

▲ 올해 6월 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이천장애인종합훈련원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최광근 선수 (사진 맨 오른쪽)

▲ 지난 9월 5일 귀국환영식 장면

시각장애인이 경험한 수중세계는 어떤 모습일까?

시각장애인 스킨스쿠버다이빙교실이 9월 6일부터 7일까지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백암해변에서 진행됐습니다.

첫째 날 이론교육과 스킨다이빙체험(스쿠버 장비가 아닌 간단한 보조용구를 부착하고 물속에 잠수하는 것)으로 바다에 대한 적응력을 기르고, 킥·턴 등을 연습한 참가자들은 둘째 날에는 실제로 바다에 나가 스킨스쿠버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심 7m 깊이까지 내려가 전복, 불가사리, 해삼 등을 직접 만져본 시각장애인들은 손끝으로 바다 속의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NEWS ALBUM

1 9월 8일 서울시 노원구청 대강당에서 '원더풀론과 함께하는 도전! 골든벨'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전국의 시각장애학생 100여명이 참가했으며, 원더풀론은 장학금을 비롯한 비용 전액을 후원했습니다.

2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점검요원 양성교육'이 9월 20일부터 1박 2일간 경상남도 창원시청에서 실시됐습니다.

3 우리 연합회는 SK텔레콤의 지원으로 '찾아가는 스마트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인천, 광주 등 주요도시에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법 등을 강의하고 있으며, 올해 11월까지 계속될 계획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생존수단인 안마사자격제도가 위협받고 있다!

대한안마사협회는 지난 9월 12일과 18일 여의도에서 '안마사 자격제도 합헌 기원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결의대회는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됨에 따라,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 합헌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시각장애인 안마사 관련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3년과 2010년에 안마사제도를 합헌으로 결정 내렸으나, 지난해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올해는 스포츠마사지업계에서 안마사자격제도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전국시각장애인축구대회 부산에서 열려

2012 전국시각장애인축구대회가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부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드림필드에서 개최됐습니다.

시각장애인축구는 전맹과 저시력종목으로 나뉘어 최소 5명(1명의 골키퍼, 4명의 필드선수)에서 최대 10명의 선수가 전·후반 각각 25분(하프타임 10분) 간 경기를 하며, IBSA(세계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시각축구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이 주최하고 부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한국시각장애인축구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100여명의 선수가 출전했습니다.